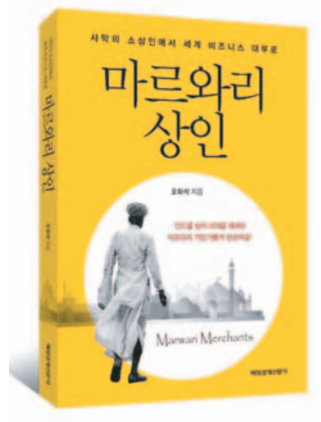
화제의 책

세계상권 틀어쥔 인도상인 '마르와리'를 아시나요



마르와리(Marwari) 상인 출간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 선뜻 떠오르는 답은 유대인이나 중국 화교가 아닐까. 사막지대와 실크로드를 누비던 대상무역을 떠올리면서 아랍상인들을 꼽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엔 나는 놈이 있는 법. 유대상인과 화교, 아랍상인을 한꺼번에 찜 쪄 먹을 만큼 상술에 능한 민족이 있다. 바로 인도 상인들이다. 유대인, 아랍인, 화교와 더불어 세계 4대 상인으로 꼽히는 인도 상인들은 기원전 6세기부터 동서양 무역로를 장악하며 커다란 부를 쌓았다. 오늘날에도 인도상인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마르와리(Marwari) 상인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마르와리는 인도상인 중에서도 으뜸가는 이들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마르와리는 '인도의 유대인', '인도의 개성상인' 쯤 되는 셈이다.

마르와리는 인도의 황량한 사막지역 라자스탄에 소재한 작은 마을 마르와르(Marwar) 출신들이다. 이들은 시장의 흐름을 재빠르게 간파하는 판단력과 야수(野獸)와 같은 저돌적인 투자, 위험을 무릅쓰는 창업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13억의 인구 중 0.6%(약 800만명)에 불과한 마르와리들은 인도의 20대 대기업 중 9개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천부적인 상술을 타고 난 사람들이다. 세계 최대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스틸(Arcelor Mittal Steel)을 비롯해 세계 3위의 정보통신서비스(ICT)기업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 영국 최대의 갑부기업 힌두자(Hinduja)그룹 등이 모두 마르와리 기업이다.

마르와리 상인들은 인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기업사에서도 이처럼 특정 지역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작은 사막 마을 출신의 소상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화교, 아랍인들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대부로 자리를 굳히게 됐을까.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갑부 대열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마르와리 기업가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최근 서점에 새로 나온 신간 '마르와리 상인'(오화석 저, 매일경제신문사간)은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다. '사막의 소상인에서 세계 비즈니스 대부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척박한 사막 출신인 마르와리 상인들이 어떻게 해서 인도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가로까지 부상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업인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풍부한 역사적 배경,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책장을 술술 넘기게 하는 흥미를 선사하고 있다.

책은 첫 장에서 마르와리 출신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삼베 상인 출신으로 인도의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디티아비를라 그룹을 일궈낸 G.D. 비를라, 일찌감치 세계화에 눈을 돌려 세계1위 철강 기업을 키운 락시미 미탈, 35만원으로 시작해 세계3위 ICT기업인 바르티에어텔을 건설한 수닐 미탈 등 마르와리 출신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옴니버스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김제 성산성 축조기법 드러내 통일신라말~고려초 판축 확인

김제 성산성의 축조 기법이 밝혀졌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의 매장문화재 학술조사사업 결과다.

김제 성산성은 김제시의 주산인 성산의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이다. 성곽의 축조와 관련한 문헌기록이 전하고 있지 않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쪽 성벽을 대상으로 발굴조사했다. 판축(版築)기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쌓은 토축성벽으로 축조됐음이 확인됐다. 판축기법은 흙을 떡시루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쌓는 방법이다. 단순히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盛土)기법보다 견고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맨 아래 성벽은 점토와 마사토(풍화암반토를 재사용한 흙)를 사용해 판축기법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판축기법으로 토성을 축조할 때 사용한 목조 구조물(비계목)의 기둥자리인 영정주공(永定柱孔)이 130㎝ 간격으로 배치돼 있음도 확인했다.

맨 아래 성벽의 위로는 두 차례에 걸쳐 성벽을 보강한 흔적이 발견됐다. 보강 성벽은 성벽 밑부분에 기단석을 2열로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판축기법으로 중심 성벽을 쌓았다. 성벽의 안쪽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석렬이 확인됐다. 성벽 내 지형을 평탄하게 고른 후 건물을 세워 성의 방어를 더욱 튼튼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선 모양 무늬가 새겨진 선문계 기와와 생선뼈무늬가 표현된 어골문계 기와가 주로 출토됐다. 물결무늬가 새겨진 대형 항아리도 여럿 발견됐다. '관(官)'자가 찍힌 기와도 나와 국가 시설로 이용됐음을 짐작케 한다.

출토유물을 근거로 성곽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말~고려초로 추정된다. 최하층 판축토성은 축조 기법이나 축조 재료, 영정주공의 간격 등을 감안하면 이전 시기로 올라갈 수도 있다.

김제 성산성 발굴조사 성과는 24일 오후 3시30분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262-4 현장에서 공개된다. /이성주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본선작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최악의 하루' · '마담 B'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인 〈최악의 하루〉, 〈마담 B〉가 제38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김종관 감독의〈최악의 하루〉는 장편 극영화 13편이 경합을 벌이는 메인경쟁 부문에, 윤재호 감독의〈마담 B〉는 장편 다큐멘터리 8편의 후보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최악의 하루〉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최악'이 되어버린 그녀와 세 남자의 늦여름 하루의 데이트를 그린 작품으로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마담 B〉는 한 탈북 여성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따라가며 묵직한 메시지와 멜로드라마의 감성을 담았다.

윤재호 감독은 "3년에 걸쳐 만들어진 작품인 〈마담 B〉가 전주국제영화제, 칸영화제에 이어 모스크바국제영화제까지 초청, 소개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 11월에는 프랑스에서, 2017년 봄에는 일본에서 개봉해 관객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유럽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오랜 역사를 지닌 '모스크바국제영화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젝트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4년 선정작 신연식 감독의〈조류인간〉이 제36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메인 경쟁에 진출했다.

또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CGV무비꼴라주상 수상작〈레바논 감정〉이 메인 경쟁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3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최치원展'

계원필경과 각양각색의 영정 · 전국 유적지 탁본 등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올해 세 번째 기획전으로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한·중 양국의 10여개 도시들이 모이는 자리로 천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국제인 최치원'의 위상을 살피고자 마련됐다.

전시관 1층에는 '최치원으로 모이다'라는 부제로 군산에 한데 모인 한·중 양국 도시 속의 최치원의 흔적을 70여 점의 사진들로 선보이며, 3층에서는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이라는 부재로 최치원의 이야기와 그의 활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관련 유물 80여 점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내용은 조기유학생이자 한류 시초였던 최치원, 당에서 일구어 낸 그의 업적, 한·중 양국에서 최치원을 기억하고 있는 도시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유물들은 전국의 박물관 및 중국 양주 최치원기념관, 최치원인문연합도시에서 150여점의 자료를 협조 받았다.

특히 현전하는 최고의 개인문집이라 평가받는 계원필경과 유교·불교·도교를 섭렵했던 대사상가 최치원을 보여주는 각양각색의 영정, 최치원의 글씨라 전해지는 전국 유적지의 탁본 등 최치원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된다.

더불어 체험영상실 공간에서는 몸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연계 체험이 마련돼 있으며, 최치원이 남긴 한시 작품들을 영상 자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 포스터.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중 양국의 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적 문호이자 국제인이었던 최치원의 위상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 브랜드 공연 할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하계방학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는 내일러를 대상으로 전북관광 브랜드공연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내일로 티켓을 이용해 1주일 동안 전국을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성, 춘향〉과 새만금상설공연〈아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모바일이나 오프라인 티켓으로 확인 가능하다.

전북브랜드공연 〈성, 춘향〉은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전북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뮤지컬로 춘향 이야기를 재해석했다. 작품은 원전과 달리 현대적 감각으로 스토리를 각색했으며 우리 소리와 함께 가, 무, 악이 어우러져 유쾌함을 전하고자 했다.

또한 새만금상설공연 〈아리〉는 아리울이라는 판타지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리공주와 율장군,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반고장군의 사랑과 대립, 권력투쟁을 그린다.

작품은 반고장군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아리공주가 연인 율장군과 아리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강력한 여전사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공연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열리며, 〈성, 춘향〉은 12월 17일까지 저녁 7시 30분 전북예술회관에서 〈아리〉는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2시 새만금상설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할인혜택은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문의는 230-7481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6월 24일〉

▷쥐띠
48년생: 귀인이 나타나 돕는 운이다.
6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이 생길 수 있는 운.
84년생: 초반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

▷소띠
49년생: 나서야 할 상황과 물러서야 할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해야.
61년생: 무리한 일은 삼가고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하라.
85년생: 자신이 할 일을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62년생: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상대방이 오해하여 구설이 따르는 운.
86년생: 어차피 나갈 금전이라면 미리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토끼띠
51년생: 신체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하라.
63년생: 놀랄 일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5년생: 식록은 있으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87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고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용띠
52년생: 경거망동만 하지 않는다면 해가 없을 것이다.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쓸만한 일이 생기나 잘 해결될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7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
88년생: 윗사람과 화합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뱀띠
53년생: 상처 되는 말은 삼가고 언쟁을 피하라.
65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것.
77년생: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89년생: 점심약속 보다는 저녁약속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유리.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
66년생: 무리한 지출은 삼가라.
78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90년생: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도 타인에게는 상처가 된다.

▷양띠
55년생: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뒤탈이 없다.
67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함구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
79년생: 윗사람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91년생: 이성과의 의견이 충돌되는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자신의 것만 아깝게 생각한다면 고독해질 수 있다.
68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문서를 잡거나 변동을 하기에 좋은 운.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발휘가 잘 된다.
92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

▷닭띠
57년생: 동기간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9년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라.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가족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니 가족의 일에 세심한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무미건조한 운이다.
70년생: 거리를 두고 공과 사를 구별하라.
82년생: 평소에 익숙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돼지띠
47년생: 동기간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5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법.
71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이 따르는 운이니 잠시 쉬어감이 마땅하다.